

실증적 논문

#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중의 정보 행동 연구\*

개별 감정과 주관적 규범 인식, 정보 행동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Griffin et al., 1999) 모델을 기반으로,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 정책에 대한 개인의 정보 탐색 및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특히 기존 RISP 모델에 '이슈 관여도'와 '정보 행동 경험'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장기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관계를 확장 분석하였다. 서울 시민(59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 기존 RISP 문헌에서 제시된 주관적 규범 인식, 위험 인식, 감정 반응, 정보 불충분 인식, 정보수집 효능감 등의 변인들이 모두 개인의 원자력 정보 탐색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느끼는 감정 반응과 관련해서는, '혼란'을 많이 느낄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이 증가하는 반면, '분노'를 많이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이 오히려 감소함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 행동 경험이 높아지고, 높은 정보 행동 경험이 정보 불충분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했다.

주제어: 위험정보탐색처리(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모델, 정보 행동 경험, 정보 불충분 인식, 혼란, 불안, 분노, 원자력 에너지



김효정 |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황성욱 |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0S1A3A2A02097375)과 2019학년도 부산대학교 신입교수 연구 정착금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김효정은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험, 위기, 과학, 보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 『광고PR 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공저, 2018)이 있다 (E-mail: hyo.kim@pusan.ac.kr, 제1저자).

\*\*\* 황성욱은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PR분야 연구와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저서로 『PR학원론』(공저, 2014), 『정책PR론』(공저, 2015), 디지털PR 이론과 실제(공저, 2019) 등이 있다 (E-mail: hsw110@pusan.ac.kr, 교신저자).

## 서론

과학기술 발전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는 다양한 위험 이슈들에 대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기후 변화와 전력 체계, 핵융합,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여러 과학 기술 이슈들은 공중의 위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뉴미디어 환경은 개인의 정보탐색 및 공유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이 과학기술 위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공유하느냐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하여 공중의 정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반 전원으로 사용된 원자력 에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재난과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변화들을 겪으며, 사회적 갈등의 요소로 작용해왔다(김유미·정운관·김봉철, 2016). 공중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의 경우 공중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 수행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에서, 공중 개인들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기관 중심의 일 방향(one-way) 정보 전달만으로는 공중의 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뉴미디어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맞는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능동적인 정보 탐색 및 전달자

로서의 공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한 개인이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정보 탐색을 하고 얻은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그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Griffin et al., 1999) 모델을 기반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RISP 모델은 개인이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무엇을 인지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정보 행동을 어떻게 취하는지 설명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RISP 모델을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에 적용 및 확장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및 에너지 정책 이슈에 대해서 수용자의 인식과 정보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원자력 에너지를 비롯한 과학기술 위험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해야 하는 유관기관들에게, 본 연구 결과는 정확한 수용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기존 RISP 문헌을 확장하고 다음과 같이 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첫째, 특히 기존 RISP 모델에 ‘이슈 관여도’와 ‘정보 행동 경험’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였다. RISP 모델에 제안된 후 초기 연구자들은 주로 지역 하천 범람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적, 단기적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후 모델이 발전되고 다양한 위험 이슈에 적용되면서 위험 이슈의 종류와 범위, 시간의 경과 수준 등에 따라 RISP 모

델 변인 간 관계들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예: 김효정, 2019).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처럼 장기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행동을 살펴봄에 있어, 정보 행동 경험과 이슈 관여도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RISP 분야의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s)으로 통합 측정되었던 것을, ‘불안’, ‘분노’, ‘혼란’이라는 개별 감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감정의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에 기반하여 RISP 모형에 세부 감정을 도입하고자 한 일련의 문헌들(예: Yang et al., 2013)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RISP 모형을 정교화함으로써 이론 발전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공중 개인의 이슈 관여도와 정보 행동 경험, 이슈에 대한 감정 반응들을 고려하여 위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유용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헌 고찰

### 1. 위험정보탐색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은 그리핀, 던우드, 뉴워쓰(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가 제안한 모델로, 개인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

인들을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RISP의 가장 핵심 변인으로는 정보 불충분 인식(information insufficiency)을 들 수 있다. 이는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양과, 현재 자신이 실제 알고 있는 정보 양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개인이 어떤 위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반면, 본인의 정보가 충분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Griffin et al., 1999). RISP 모델은 개인의 위험 인식, 감정, 정보의 주관적 규범 등이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불충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보 불충분 인식이 다시 개인의 위험 정보 행동(정보 탐색, 정보 회피, 체계적 정보 처리, 휴리스틱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일련의 학자들은 RISP 모델을 기반으로, 개인 질병, 전염병, 예방접종, 산업재해위험,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 이슈에 대한 공중의 정보 행동 의도를 분석해왔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부터 RISP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예를 들어 허서현과 김영욱(2015)은 두 가지 위험 이슈(불산 유출과 태풍)에 대해 RISP 모델을 검증했으며, 서미혜(2016)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이슈에 대해 개인의 정보탐색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순치엔룽과 조미혜(2018)는 중국인들이 한국 사드 배치 관련 정보에 대한 탐색 및 처리 경향을 RISP 모델로 분석했다. 김효정(2019)은 RISP 모델을 원자력 발전 분야에

적용하여, 개인이 원자력 관련 정보를 탐색 및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초기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발견을 기반으로 국내 원자력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여 RISP 모델을 검증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불충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이슈 관여도, 정보 행동 경험)을 추가하고, 감정 반응을 세분화하며(불안, 분노, 혼란), 정보수집 효능감이 추가적인 정보 탐색 의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RISP 모델의 주요 변인

먼저 RISP 모델의 인지된 위험의 특성(perceived hazard characteristics)은 어떤 위험 이슈에 대한 판단, 위험 이슈에 대한 책임 인식, 관련 기관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인식들을 포함한다(Griffin et al., 2008). 일련의 학자들은 그중에서 특히 특정 위험의 심각성 인식을 측정하는 '위험 인식'(risk perceptions)의 역할에 주목해왔다. 어떤 위험 이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그러한 감정(Yang & Kahlor, 2013)이 정보 불충분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ter Huurne et al., 2009; Yang et al., 2013; Yang et al., 2020). 예를 들어, 양과 카홀로(Yang & kahlor, 2013)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감정 반응이 높아지고, 부정적 감정은 기후변화에 대해 스스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보

불충분 인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감정은 정보 불충분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기도 했다(서미혜, 2016).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정보 불충분 인식(information insufficiency)은 RISP의 핵심 변인으로서, 개인이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Griffin et al., 1999). 일련의 연구자들(예: 이혜규·백혜진·김수진, 2018; 허서현·김영옥, 2015; 서미혜, 2016; Griffin et al., 2004; Griffin et al., 2005; Yang et al., 2013)은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불충분 인식이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 감정이 정보 불충분 인식에 각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대부분의 기존 RISP 연구들은 부정적 감정을 조작화함에 있어, 불안, 분노, 불확실 등의 반응들을 모두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하나의 감정(예: 걱정)만을 측정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RISP 모델을 활용하는 위험 이슈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을 모두 세분화하여 측정하여 개별 감정들이 RISP 모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감정의 인지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에 의하면, 감정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의 결

과로 발생하며,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개별 감정들이 유발된다(Fridja, 1986; Lazarus, 1991; Scherer, Schorr, & Johnstone, 2001).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유쾌성, 개인의 목표와의 연관성, 변화의 가능성,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 등의 범주에 따라 평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기 다른 개별 감정들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Lanctot & Hess, 2007). 또한 이러한 개별 감정들은 이어지는 인지 및 판단, 행동 경향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Lazarus, 1991; Lerner & Keltner, 2000, 2001; Lerner & Tiedens, 2006; Nabi, 2003; Roseman & Smith). 이에 본 연구는 기존 RISP 문헌에서 통합하여 사용되었던 개별 감정(불안, 분노, 혼란)들을 세분화하여, 각 감정이 RISP 모형 안에서 작동하는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세 가지 개별 감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중의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진상현, 2014). 불안(anxiety)은 두려움(fear)과는 개념적 정의가 다른데, 두려움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근접한 위험(dagner)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불안(anxiety)은 재해(harm)의 발생이 불확실하거나 시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LeDoux & Pine, 2016). 본 연구는 원전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두려움보다는 불안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원자력 발전 이슈가 질병이나 자연 재해와는 달리 운영을 책임지는 관련 기관과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또한 2011년 이후 관련 기관 내 부정부패 사건 보도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분노(anger) 감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원자력 에너지 이슈가 정치적 갈등 문제로 고착되고, 특히 언론 매체의 정파성에 따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측면 중 한쪽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해당 이슈에 대해 공중이 느낄 수 있는 혼란(confusion)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기존 RISP 문헌에서 통합하여 사용되었던 개별 감정(혼란, 불안, 분노)들을 세분화하여, 국내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각 감정의 영향력을 따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의 위험 인식, 부정적 감정, 정보 불충분 인식에 대한 기존 RISP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위험 인식은 해당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 반응, 즉 (a)혼란, (b) 불안, (c)분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 즉 (a)혼란, (b)불안, (c)분노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불충분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 인식은 개인의 (a)정보 탐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RISP 모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동기 변인은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information subjective

norms)이다. 정보의 주관적 규범은,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리라 기대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Griffin et al., 1999)이다. 초기 RISP 모델(Griffin et al., 1999)은 위험 정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정보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불충분 인식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기반하여 일련의 RISP 연구자들(서미혜, 2016; Griffin et al., 2008; Yang et al., 2013; Yang et al., 2014)이 정보의 주관적 규범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카홀로와 동료들(Kahlor et al., 2006)은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상충되는 결과들을 발견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양과 동료들(Yang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 허서현·김영옥(2015)의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양과 동료들(Yang et al., 2014)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정보 수준의 사회적 기대가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 스스로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효정(2019)은 이렇게 상충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RISP 연구가 분석한 위험 이슈와 '시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지역 하천 범람이나 홍수(Griffin et al., 2008), 메르스(서미혜, 2016)와 같은 단기적인 위험 이슈

에 대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이 정보 불충분 인식을 증가시키는 정(+)-적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기후변화(Yang et al., 2014)나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보다 큰 범위의 장기적 사회 이슈의 경우에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정보를 탐색해왔기 때문에 현재 정보 불충분 인식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정보 행동 경험의 수준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보의 주관적 규범과 정보 불충분 인식 사이에 정보 행동 경험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RISP 모델을 보다 정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이슈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과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보 행동 경험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의 경우, 일련의 연구자들(김영옥 외, 2017; 서미혜, 2016; 허서현·김영옥, 2015; Griffin et al., 2008; Kahlor, 2007; Li, Zhai, Zhou, Fan, Wu, & Ren, 2017; Liu, Chen, Shi, & Yan, 2021; ter Huurne et al., 2009; Yang et al., 2013)은 주관적 규범 인식이 정보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리와 동료들(Li et al., 2017)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련 정보 탐색 의도가 증가함을 발견했고, 리우와 동료들(Liu et al., 2021)은 최근 코로나-19

이슈에 대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탐색 의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의지가 더 높다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 발전은 1978년 최초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40년 이상 이용되어왔고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이슈라는 점에서,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관련 정보를 찾고 이용한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또한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련 정보 행동 경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의하면, 개인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특정 메시지에 대한 정보 처리 경로가 달라진다(Petty & Cacioppo, 1986). 관여도가 높은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해 더 높은 인지적 노력을 들여 생각하고 정교화한다는 것이다. 즉, 관여도는 정보 처리와 정보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권중록, 2007)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높은 이슈 관여도가 보다 적극적인 정보 행동을 이끌어냄을 실증적으로 발견했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해 관여도가 높을수록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며(김인숙, 2008; 윤태일·심재철, 2003),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이수범·김남이, 2013; 임경복, 2007), 더 많은 시간을 정보 행동에 들인다는 것이다(김주성·강정호, 2002). 이러한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슈 관

여도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 행동 경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은 낮아지고 정보 수집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때 정보 수집 효능감은 내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효능감 인식이다(Yang et al., 2013; Yang & Kahlor, 2012). 반두라(1997)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행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된 다양한 과거 경험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정보를 찾고 처리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관련 정보에 대한 불충분 인식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가설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H4:**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슈 관여도는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은 정보 불충분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은 정보 수집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RQ1:**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 불충분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RISP 모델에 따르면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informational subjective norms)은 정보 불충분 인식과 함께,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Griffin et al., 1999). 이는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 인식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예: 김영옥 외, 2017; Griffin et al., 2008; Kahlor et al., 2006; Kahlor, 2007)은 여러 위험 이슈에 대해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카홀로와 동료들(Kahlor et al., 2006)은 환경 문제에 대해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련 정보에 대한 탐색 의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즉, 특정 이슈에 대한 나의 정보 수준에 대해 높은 사회적 기대를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탐색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새롭게 제안하여 추가한 변인인 ‘이슈 관여도’와 ‘정보 행동 경험’의 경우 관련된 RISP 선행 문헌은 없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관련 정보 행동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관련 정보를 더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특정 문제에 대한 개인의 관여도가 높을수록 관련 정보 탐색 의도가 높아짐을 발견한 기존 연구(예: Lim & Zhang, 2021)와,

정보 행동 경험이 높을수록 정보 문해력과 효능감이 증가한다는 연구(예: Massey & Ehrensberger-Dow, 2011)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즉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또한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관련 정보에 대해 더 찾아보고자 하는 탐색 의도가 더 높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정보 수집 효능감이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보 수집 효능감과 정보 탐색 의도 간에 정(+)적 영향을 발견한 기존 RISP 문헌(Griffin et al., 2013; Kahlor et al., 2019; Li et al., 2017; Liu et al., 2021)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일련의 학자들은 다양한 위험 이슈(예: 지진, Li et al., 2017; 코로나-19, Liu et al., 2021;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Kahlor et al., 2019)에 대해서, 개인의 정보 수집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헌을 기반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8:**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관련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슈 관여도는 관련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 경험은 관련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 수집 효능감은 관련 정보 탐색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를 더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관련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RISP 연구들이 정보 탐색과 회피, 체계적 혹은 주변적 정보 처리 등의 정보 행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 일련의 연구들(김효정, 2019; 순치엔룡·조미혜, 2018; Yang et al., 2014)은 그러한 정보 행동이 정보 공유 및 확산 의도에 미치는 정(+)영향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양과 동료들(Yang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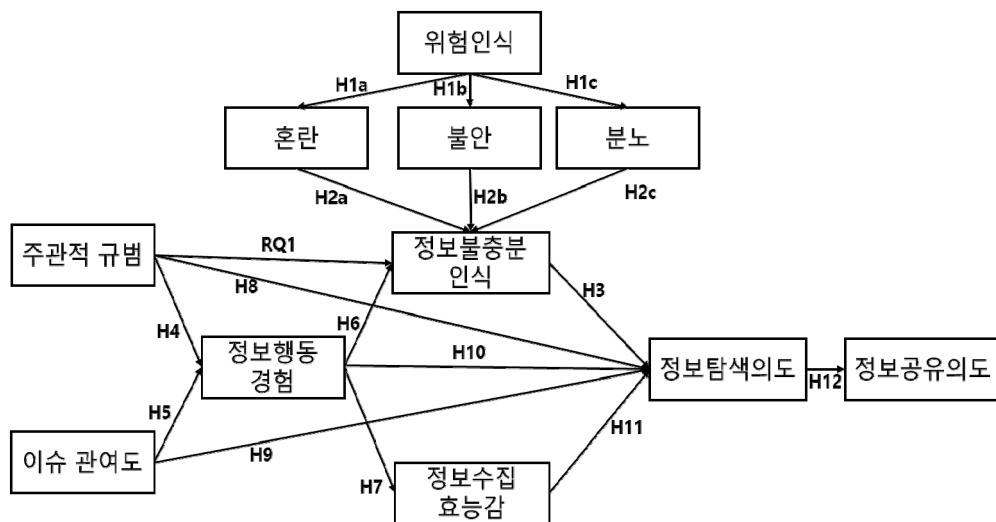
- **H12:**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는 관련 정보 공유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기술한 가설과 연구 문제들을 종합하여 모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 방법

### 1. 설문 조사

본 연구는 위험정보탐색처리 모형과 관련 연구에 대한 폭넓은 문헌 검토를 통해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고, 대학원생 20명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합도 및 내용상 오류를 점검, 수정하였다. 최종 내용타당도를 점검한 후 완성된 최종설문지를 가지고 2019년 4월 온라인 설문 전문회사를 통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 원자력 관련 정보 탐색 모델

## 2. 조사 대상

설문 조사 대상은 온라인 설문 조사 회사가 자체 패널로 보유하고 있는 20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 남녀로, 성별, 연령, 지역의 경우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표집을 실시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수는 총 593명으로, 응답자들의 연령은 평균 약 40세( $M = 39.92$ ,  $SD = 10.67$ ), 성별은 남성이 50.4%(299명), 여성이 49.6%(294명)를 차지하였다.

## 3. 주요 변인 측정

### 3.1 위험 인식 (risk perceptions)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응답자의 위험 인식은 총 여덟 문장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였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 “원자력 에너지는 폭발이나 방사선 누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역코딩),” “원자력 발전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역코딩),”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 시 결과는 사람과 자연환경에 치명적이다,” “원자력 발전 전반이 안전하게 관리, 감시, 통제되고 있다(역코딩),”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가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창수·김동현·김정훈, 2013; Cox & Cox, 2001). 여덟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 Alpha = .83) ( $M = 3.28$ ,  $SD = .65$ ).

### 3.2 감정 (emotions)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 반응은, ‘분노’와 ‘불안’, ‘혼란’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해 나는 \_\_\_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5점 리커트 척도로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Shen & Dillard, 2007). 각 문항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다: 분노 ( $M = 2.58$ ,  $SD = .94$ ), 불안 ( $M = 3.26$ ,  $SD = 1.08$ ), 혼란 ( $M = 2.94$ ,  $SD = 1.02$ ).

### 3.3 정보 불충분 인식 (perceived information insufficiency)

응답자의 정보 불충분 인식은 두 개의 질문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응답자가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100점 척도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0 =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름,” 100 =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음”). 다음으로, 응답자가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두 응답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불충분 인식 값을 도출하였다(Griffin et al., 2004; Yang et al., 2013; Yang & Kahlor, 2013) ( $M = 26.10$ ,  $SD = 25.58$ ).

### 3.4 정보의 주관적 규범(information subjective norms)

응답자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총 세 문장 문장

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나의 가족은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와 친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Clarke & McComas, 2012; Yang et al., 2013; 허서현 · 김영옥, 2015).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85) (M = 2.81, SD = .84).

### 3.5 이슈 관여도 (issue involvement)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이슈 관여도 인식은 총 두 문장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는 나와 관련이 있다,”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은 나와 관련이 있다.”(Zaichkowsky, 1986; 1994; 박웅기, 2013; 김효정 2017).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79) (M = 3.43, SD = .99).

### 3.6 정보 행동 경험 (information behavior experience)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은 총 네 문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귀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정보 검색, 관련 단체 방문, 토론회 참석 등의)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온라인)를 통해 보고 듣거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해 보았습니까?” “귀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해 보았습니까?” (김인숙, 2001; 남경태, 2006). 네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 Alpha = .82) (M = 2.89, SD = .83).

### 3.7 정보 수집 효능감(perceived efficacy of information collection)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 효능감은 기존 문헌(Clarke & McComas, 2012; Yang et al., 2013; Yang & Kahlor, 2012)을 기반으로 총 두 항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만약 내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나는 전문가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79) (M = 2.92, SD = .81).

### 3.8 정보 탐색 의도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s)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찾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총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나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 “나는 향후 원자력 이슈에 대해 더 알아볼 의향이 있다,” “나

는 앞으로 원자력 발전 이슈에 관한 정보를 더 찾아 볼 것이다.” 세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을 하였다 (Cronbach Alpha = .91) ( $M = 3.55$ ,  $SD = .77$ ).

### 3.9 정보 공유 의도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s)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 총 세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어보았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얻은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원자력 이슈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의향이 있다,” “나는 향후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 (Kim & Grunig, 2011; Yang et al., 2013; 순치엔 룡 · 조미혜 2018; 한정호 · 박노일 · 정진호, 2007).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89) ( $M = 3.37$ ,  $SD = .82$ ).

## 분석 결과

### 1. 연구 모형 검증

〈그림1〉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23의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수가 많고 기존 문헌에 의해 신뢰도가 검증되어온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 문항들의 평균값으로 단일변수를 먼

저 만든 후에 단일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분석하는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Yi, 1992). 초기 분석 결과,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는 주관적 규범 인식이 이슈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원자력 에너지 이슈 관련하여 주변의 높은 기대를 인식할수록 관여도가 높아지는 관계 추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지수에 맞추어 연구 모형을 수정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주요 가설과 연구 문제를 포함한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았다: Chi-square = 741.82,  $df = 99$ ,  $p < .05$ ; RMSEA = .052; NFI = .93; CFI = .94; GFI = .95; AGFI = .90. 적합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지수들이 비교적 적합한 권고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문제와 가설의 검증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을 통하여 분석된 연구 문제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가설1〉 검증 결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개인의 혼란( $\beta = .49$ ,  $p < .001$ ), 불안( $\beta = .93$ ,  $p < .001$ ), 분노( $\beta = .49$ ,  $p < .001$ ) 감정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높은 위험 인식을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원자력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혼란, 불안, 분노의 감정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표 1〉 연구문제 및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비 (C.R.)	p-value	결과
H1(a)	위험인식 → 혼란	.49	.06	13.70	<.001	채택
H1(b)	위험인식 → 불안	.63	.05	19.96	<.001	채택
H1(c)	위험인식 → 분노	.49	.05	13.73	<.001	채택
H2(a)	혼란 → 정보불충분 인식	.15	1.42	2.66	<.01	채택
H2(b)	불안 → 정보불충분 인식	n.s.	1.33	1.07	n.s.	기각
H2(c)	분노 → 정보불충분 인식	-.13	1.47	-2.43	<.05	기각
H3	정보불충분 인식 → 정보탐색의도	.18	.001	5.53	<.001	채택
H4	주관적규범 인식 → 정보행동경험	.53	.03	15.72	<.001	채택
H5	이슈관여도 → 정보행동경험	.20	.03	5.77	<.001	채택
H6	정보행동경험 → 정보불충분 인식	-.25	1.43	-5.40	<.001	채택
H7	정보행동경험 → 정보수집효능감	.45	.04	12.10	<.001	채택
RQ1	주관적규범 인식 → 정보불충분 인식	-.15	1.45	-3.23	<.01	
H8	주관적규범 인식 → 정보탐색의도	.21	.04	5.43	<.001	채택
H9	이슈관여도 → 정보탐색의도	.16	.03	4.94	<.001	채택
H10	정보행동경험 → 정보탐색의도	.33	.04	8.39	<.001	채택
H11	정보수집효능감 → 정보탐색의도	.07	.03	2.01	<.05	채택
H12	정보탐색의도 → 정보공유의도	.97	.05	18.95	<.001	채택

가설1(a), 1(b), 1(c)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2〉 검증 결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느끼는 세 가지 감정 반응(혼란, 불안, 분노)은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혼란 감정은 정보 불충분 인식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beta = .15, p < .01$ ). 불안 감정은 정보 불충분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반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분노 감정은 정보 불충분 인식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혼란의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본인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커진 반면(가설2(a) 채택), 분노의 감정은 더 많이 느낄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불안의 감정은 정보 불충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설2(b), 가설2(c) 기각).

〈가설3〉 검증 결과, 정보 불충분 인식은 정보 탐색 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beta = .18, p < .001$ ). 즉,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자신의 정보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설3은 채택되었다.

〈가설4〉 검증 결과,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정보 행동 경험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beta = .53, p < .001$ ). 즉, 자신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 수준에 대해서 높은 사회적 기대를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관련 정보를 찾고 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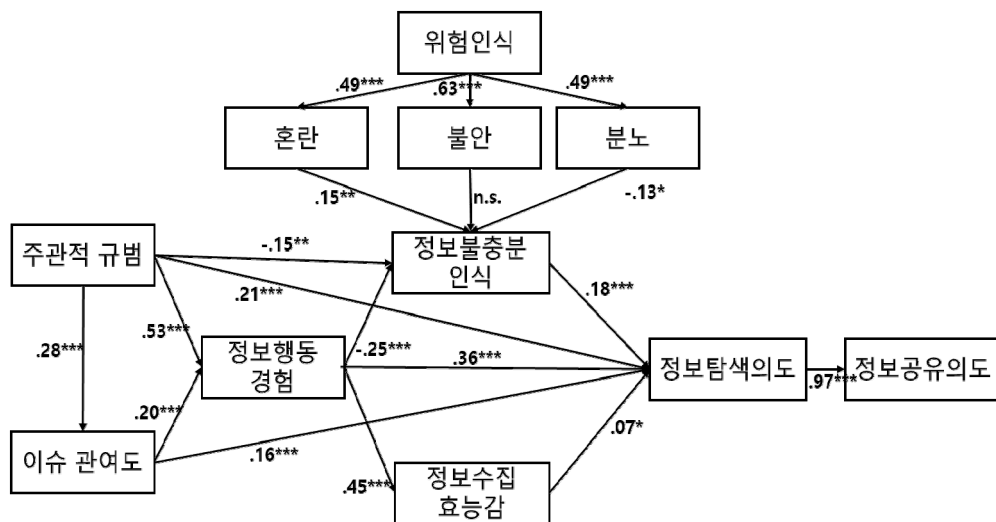
공유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 검증 결과, 이슈 관여도 역시 정보 행동 경험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beta = .20, p < .001$ ).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여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 행동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4와 가설 5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6>과 <가설7>의 검증 결과, 이러한 정보 행동 경험은 정보 불충분 인식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정보 수집 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 행동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정보 수준에 대한 불충분 인식은 낮고( $\beta = -.25, p < .001$ ),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5, p < .001$ ). 이에 가설6과 가설7은 모두 채택되었다.

<연구 문제1>의 경우,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에 대해 주관적 규범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beta = -.15, p < .01$ ).

<가설8>과 <가설9>의 검증 결과,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과 이슈 관여도는 정보 탐색 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 정보 관련해서 주변의 기대를 높게 인식할수록( $\beta = .21, p < .001$ ),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개인적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beta = .16, p < .001$ ),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더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설8과 가설9는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10>과 <가설11> 검증 결과, 정보 행동 경험과 정보 수집 효능감 역시 정보 탐색 의도에 모



<그림 2> 연구 모형과 표준화회귀계수

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 관련해서 쌓아온 정보 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beta = .36, p < .001$ ),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정보 수집 효능감이 높을수록( $\beta = .07, p < .05$ ),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를 더 탐색하려는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설10과 가설11은 모두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설12> 검증 결과, 정보 탐색 의도와 정보 공유 의도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 관련해서 더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획득한 정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 의도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 결론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과학기술 정책 이슈에 대하여 공중의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공중의 다양한 위험 인식과 감정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공중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험정보탐색처리(RISP) 모델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RISP 문헌에서 제시된 주관적 규범 인식, 위험 인식, 감정 반응, 정보 불충분 인식, 정보 수집 효능감 등의 변인들이 모

두 개인의 원자력 관련 정보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탐색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RISP 모델의 설명력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추가하여 모델의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RISP 문헌을 한단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RISP 문헌에서 '부정적 감정'으로 통합하여 측정되었던 감정 반응을 '혼란'과 '분노', '불안'이라는 개별 감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를 설명하는 RISP 모델 안에서, '혼란'과 '분노', '불안' 감정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 인식에 대해서는 세 감정 반응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즉, 위험 인식이 큰 응답자일수록,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혼란과 분노, 불안 감정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 반응이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혼란'을 느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보 불충분 인식이 증가한 반면, '분노' 반응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났다. 즉,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분노'를 느낄수록 정보 불충분 인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의 인지적 평가 이론과 궤를 같이 하여, '혼란'과 같이 불확실 감정의 경우 추가 정보에 대한 필

요성을 더 느끼게 한 반면, '분노'와 같은 확실 감정은 관련 이슈에 대해 이미 확신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보 불충분 인식을 오히려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험 이슈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확실성 수준에 따라, 정보 불충분 인식 및 정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 공중이 느끼는 다양한 개별 감정들이 RISP 모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은 후속 RISP 연구를 통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이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RISP 문헌(ter Huurne et al., 2009; Yang & Kahlor, 2013; Yang et al., 2020)을 기반으로, 개별 감정(불안, 분노, 혼란)이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감정의 평가 이론에 따르면, 다양한 개별 감정들은 각기 다른 행동 경향(action tendenc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노" 감정의 경우, 분노 감정의 대상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Kim & Cameron, 2011; Nabi, 2003), 이를 본 연구 맥락에 적용하자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분노'를 많이 느끼는 공중이 정보 불충분 인식은 감소하는 반면, 해당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려는 행동 의도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개별 감정들이 정보 불충분 인식뿐만 아니라, 정보의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 등 행동 관련 변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 결과의 의미 있는 확장이 될 것이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위험 이슈에 대해 '분

노'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공중의 경우, 관련 이슈에 대해 상세한 과학적 정보를 먼저 제시하기 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된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 감정의 경우, 불확실한 부정적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보 불충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원자력 발전 시설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정책이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언급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물리적, 정서적 거리에 따라 개별 감정의 작동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향후 RISP 연구에서 추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 RISP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보 행동 경향'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장기적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는 주로 단기적 위험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초기 RISP 모델을 좀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였다. 상술했듯이 초기 RISP 연구들은 지역 하천 범람이나 홍수(Griffin et al., 2008)와 같이 새로 등장한 단기적 위험에 대한 정보 탐색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왔다. 그러나 RISP 모델을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문헌과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라는 장기적 이슈에 대해서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정보 불충분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4). 이렇게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의 관계에 대해 상충되는 결과가 존재하는 RISP 문헌에 대해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적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즉 단기적인 위험 이슈에 대해서는 주관적 규범 인식이 정보 불충분 인식을 증가시키는 반면, 기후변화나 원자력 에너지, 과학 기술과 같이 장기적으로 존재해온 위험 이슈 경우에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정보를 탐색해왔기 때문에 현재 정보 불충분 인식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개인이 그동안 쌓아온 정보 행동 경험의 수준을 함께 분석하였다. “정보 행동 경험”은 해당 이슈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정보를 찾고 처리하였는지, 또 주위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과거 경험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보 탐색 의도 변인과 다르다. 분석 결과, 본 연구가 예측한 대로,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행동 경험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정보 행동 경험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원자력 발전과 같은 장기적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높은 주관적 규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정보를 탐색하고, 결과적으로 정보 불충분 인식이 감소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규범 인식과 정보 불충분 인식 간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혼재하는 RISP 문헌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RISP 변인들 간 관계

를 설명함에 있어 특정 위험 이슈의 ‘시간적 요소’ 변인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보 탐색 의도는, 장기적 이슈에 대해 기존의 정보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찾아볼 의향의 정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RISP 문헌의 측정했던 정보 탐색 의도와 구별된다. 장기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서, 단순한 정보 탐색 의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정보 경험과 추가적인 향후 탐색 의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시도한 이론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과거 정보 경험과 추가 정보 탐색 의도를 측정함에 있어 더 세밀한 측정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패널 연구와 같은 중단 연구를 활용하여 두 변인의 관계와 시계열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미있는 검증이 될 것이다.

셋째, 상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주관적 규범 인식은 정보 행동 경험을 통해 정보 불충분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관적 규범 인식은 정보 탐색 의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 행동 경험 수준과는 별개로, 주관적 규범 인식은 여전히 개인의 정보 탐색 의도를 높이는 핵심 동기 변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이슈에 대한 나의 정보 수준에 대해서 높은 사회적 기대를 느낄수록,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러한 주관적 규범 인식은 또한 이슈 관여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로 설정되지 않았던 주관적 규범-이슈 관여도 관계는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분석 결과 제안되어 추가되었다. 즉 원자력 에너지 관련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인식이 증가할수록, 해당 이슈에 대해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주관적 규범 인식과 관여도는 각각 정보 탐색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중의 적극적인 정보 추구를 높이고자 하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수용자도 잘 알고 있으리라 기대할 것이라는 규범적 메시지를 활용하여 SNS 메시지를 구성하거나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면, 이슈에 대한 개인의 관여도와 함께 정보 탐색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한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의 경우, 정보 불충분 인식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정보 탐색 의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상당한 크기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36$ ). 이는 RISP 모델에서 핵심 동기 변인인 정보 불충분 인식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동기의 기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어떤 위험 이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정보 불충분 인식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 의도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이미 그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 행동 경험을 쌓아 충분한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추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동기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기제가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다양한 단기적, 장기적 위험 이슈에 대하여 RISP 모델을 중심으로 더욱 확장,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은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자신감,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수집 효능감은 기존 RISP 연구자들(Griffin et al., 2013; Kahlor et al., 2019; Li et al., 2017; Liu et al., 2021)에 의해서 이미 다수 연구된 것으로, 일련의 학자들은 다양한 위험 이슈에 대해서, 정보 수집 효능감이 정보 탐색 의도를 증가시킴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라는 과학기술 이슈에 있어서도 정보 수집 효능감이 주요한 동기 변인임을 다시 한번 실증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 행동 경험이 이러한 효능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했다. 또한 정보 효능감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험 이슈에 대해 공중의 정보 행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실무자들에게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어떤 과학 기술 이슈에 대해 공중의 적극적인 정보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정보보다는 간단하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들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정

보 행동 경험 변인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측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 특정 위험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주로 사용된 미디어 채널이나 행태를 나누어 정보 행동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정치화된 과학기술의 경우, 정파성을 띄는 언론 매체나 커뮤니티 등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화된 정보 행동 경험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측정 문항들을 좀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슈 관여도 측정 문항은 타겟 응답자들의 거주 지역에 맞게 적절히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개별 감정 역시 다중

항목으로 측정한다면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Harmon-Jones et al., 2016).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만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델은 보다 다양한 과학 기술 정책 및 위험 분야에서 적용, 확장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RISP 모형에서 제시하는 여러 정보 행동 가운데, 본 연구는 정보 탐색 부분만 다루었다. 위험 이슈에 대한 정보 탐색뿐만 아니라, 정보의 회피, 정보의 체계적 처리 및 휴리스틱 처리 등의 행동 의도에 대해 본 연구 결과를 적용 및 검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옥, 이현승, 이해진, 김혜인 (2017). 미세먼지 위협에 대한 공중들의 정보 탐색과 처리에 이것대한 연구: 인지된 정보 수집 능력, 언론 정보원 신뢰, 책임 귀인과 경험 정도의 조절 효과 분석. *커뮤니케이션학연구*, 25(2), 5~44.
- 김유미, 정운관, 김봉철 (2016). 원자력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자력 안전규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원자력 위협지각과 효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9(3), 9~25.
- 김인숙 (2001).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홍보학연구*, 5(1), 62~84.
- 김인숙 (2008). 상황 지각과 공중의 유형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이슈 관련 행동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3), 201~232.
- 김주성, 강정호 (2002). 스포츠산업 경영: 프로축구 관여도와 정보요구도가 정보탐색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1(3), 259~273.
- 김창수, 김동현, 김정훈 (2013).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선 및 원전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81~287.
- 김효정 (2019). 위협인식, 두려움, 분노가 원자력정보 탐색과 처리,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탐색처리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2), 7~45.
- 남경태 (2006). 외모지상주의 문제에 관한 공중별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관한 연구: Grunig의 상황적 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광고홍보학보*, 8(3), 237~270.
- 박진우, 이형민, 한동섭 (2014). 고리 원자력 발전소 블랙아웃 사고에 대한 매체별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14(2), 31~74.
- 서미혜 (2016). 메르스 관련 위협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78, 116~140.
- 순치엔룽, 조미혜 (2018).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인들의 위협 정보 탐색 처리 및 정보 확산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3(2), 329~351.
- 신해정, 금희조, 정성은 (2012). 원자력 에너지 이슈의 이득-손실 틀짓기 효과: 개인의 물질/탈물질주의적 가치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5), 190~215.
- 윤태일, 심재철 (2003). 인터넷 웹사이트의 의제설정 효과. *한국언론학보*, 47(6), 194~219.
- 이수범, 김남이 (2013). 정책 이해도 및 관여도가 공중의 정책 태도, 정보탐색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5(3), 220~254.
- 이형민, 박진우, 한동섭 (2015). PR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0(6), 233~261.
- 이혜규, 백혜진, 김수진 (2018). 지진 위험 정보의 탐색 의도에 미치는 요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의 적용과 심리적 거리의 조절 효과. *한국PR학회 학술대회*, 173~189.
- 임경복 (2007). 의복 관여도와 충성 성향이 정보탐색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1(9), 1396~1407.
- 진상현 (2014). 원자력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 격차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4), 149~173.
- 한정호, 박노일, 정진호 (2007). 온라인과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공중 세분화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7(1), 319~350.
- 허서현, 김영옥 (2015). 위험 유형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70, 246~276.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 Clarke, C. E., & McComas, K. (2012). Seeking and processing influenza vaccine information: A study of health care workers at a large urban hospital. *Health Communication*, 27(3), 244~256.
- Cox, D., & Cox, A. D. (2001). Communicating the consequences of early detection: The role of evidence and framing.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65(3), 91~103.
- Fornell, C., & Yi, Y. (1992). Assumptions of the two-step approach to latent variable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0(3), 291~320.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the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mental Research*, 80(2), S230~S245.
- Griffin, R. J., Neuwirth, K., Dunwoody, S., & Giese, J. (2004). Information sufficiency and risk communication. *Media Psychology*, 6, 23~61.
- Griffin, R. J., Yang, Z. J., Ter Huurne, E., Boerner, F., Ortiz, S., & Dunwoody, S. (2008). After the flood: Anger, attribution, and the seeking of information. *Science Communication*, 29, 285~315.
- Harmon-Jones, C., Bastian, B., & Harmon-Jones, E. (2016). The discrete emotions questionnaire: A new tool for measuring state self-reported emotions. *PloS One*, 11(8), e0159915.
- Kahlor, L., Dunwoody, S., Griffin, R. J., & Neuwirth, K. (2006). Seek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impersonal risk. *Science Communication*, 28(2), 163~194.
- Kahlor, L., Dunwoody, S., Griffin, R. J., Neuwirth, K., & Giese, J. (2003). Studying heuristic-systematic processing of risk communication. *Risk Analysis*, 23, 355~368.

- Kim, H. J., & Cameron, G. T. (2011). Emotions matter in crisis: The role of anger and sadness in the publics' response to crisis news framing and corporate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Research, 38*(6), 826-855.
- Kim, J. N., & Grunig, J. E. (2011).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ive action: A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Journal of Communication, 61*(1), 120-149.
- Lancot, N., & Hess, U. (2007). The timing of appraisals. *Emotion, 7*, 207-212.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Doux, J. E., & Pine, D. S. (2016). Using neuroscience to help understand fear and anxiety: A two-system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3*(11), 1083-1093.
-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46-159.
- Lerner, J. S., & Tiedens, L. Z. (2006). Portrait of the angry decision maker: How appraisal tendencies shape anger's influence on cognition.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9*, 115-137.
- Li, S., Zhai, G., Zhou, S., Fan, C., Wu, Y., & Ren, C. (2017). Insight into the earthquake risk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the victims: Evidence from Songyua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3), 267. doi:10.3390/ijerph14030267
- Lim, J. S., & Zhang, J. (2021). The impact of message appraisals of Dove's campaign for real beauty on information seeking and electronic word-of-mouth intentions of US female consumers. *Telematics and Informatics, 61*, 101594.
- Liu, M., Chen, Y., Shi, D., & Yan, T. (2021). The public'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in China during early stages of the COVID-19 outbreak. *Frontiers in Psychology, 12*, 649180.
- Massy, G., & Ehrensberger-Dow, M. (2011). Investigating information literacy: A growing priority in translation studi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2*(2), 193-211.
- Nabi, R. L. (2003). Exploring the framing effects of emotion: Do discrete emotions differentially influe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seeking, and policy preference? *Communication Research, 30*, 224-247.
- Scherer, K. R., Schorr, A., & Johnstone, T. (2001).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methods,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en, L., & Dillard, J. P. (2007). The influence of BIS/BAS and message framing on the processing of persuasive health messages. *Communication Research, 34*, 433-467.
- Ter Huurne, E. F. J., Griffin, R. J., & Gutteling, J. M. (2009). Risk information seeking among U.S. and Dutch residents. *Science Communication, 31*, 215-237.

- Yang, J., Kahlor, L., & Li, H. (2014). A U.S.-China comparison of risk information-seeking intentions. *Communication Research, 41*, 935~960.
- Yang, Z. J., & Kahlor, L. (2013). What, me worry? The role of affect in information seeking and avoidance. *Science Communication, 35*, 189~212.
- Yang, Z. J., Aloe, A. M., & Feeley, T. H. (2014).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64*(1), 20~41.
- Yang, Z. J., Kahlor, L., & Griffin, D. (2014). I share, therefore I am: A U.S.-China comparison of college students' motivations to share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1), 112~135.
- Yang, Z. J., McComas, K. A., Gay, G., Leonard, J. P., Dannenberg, A. J., & Dillon, H. (2010). Motivation for health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about clinical trial enrollment. *Health Communication, 25*(5), 423~436.
- Yang, Z. J., Rickard, L. N., Harrison, T. M., & Seo, M. (2014). Applying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model to examine support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olicy. *Science Communication, 36*(3), 296~324.
- Yang, Z. J., Seo, M., Rickard, L. N., & Harrison, T. M. (2015). Information sufficiency and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Predicting support for climate change policy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Risk Research, 18*(6), 727~746.
- Yang, Z., Paudel, K. P., Wen, X., Sun, S., & Wang, Y. (2020). Food safety risk information-seeking intention of WeChat User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7), 2376. doi:10.3390/ijerph17072376
- Zaichkowsky, J. (1986). Conceptualizing involvement. *Journal of Advertising, 15*, 4~14.

투고일 : 2022년03월10일/ 수정일 : 2022년05월22일/ 게재확정일 : 2022년05월23일

## Abstract

# Study on Public Information Behaviors on Nuclear Energy Policy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Discrete Emotions, Subjective Norm Recognition, and Information Behavior Experience

Hyo J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ngwook Hwang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Griffin et al., 1999) model,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individuals' intention to seek and share information about nuclear energy and related policies. In specific, this study expanded the existing RISP literature by adding variables such as “issue Involvement” and “information behavior experience” to the model, which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ffecting information behaviors on long-term social issues such as nuclear energy. As a result of an online survey conducted on Seoul citizens (n = 593), individuals' subjective norm perception, risk perception, discrete emotions, information insufficient percep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efficacy were found to influence their intention to search for nuclear energy-rela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emotional response to nuclear energy in Korea, the more the respondents 'confusion' felt,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insufficient information, whereas the more 'anger' fel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insufficient informa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subjective norm perception of information, the higher the information behavior experience, which in turn led to the lower the information insufficient perception.

keywords: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Information Behavior Experience, Information Insufficiency Perception, Confusion, Anxiety, Anger, Nuclear Energy